

“건축은 땅·기후·사람에 의해 다른 맛이 나는 포도주 같아야죠”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인문학 곁들이 건축·도시 이야기



독일 디자인상과 2016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수상한 유현준 교수의 신안군압해읍 복지회관 전경.

지난해 tvN에서 방영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시즌 2’에서 유현준(49) 홍익대 교수가 들려주는 건축이야기는 기발하고, 새로웠다. 그의 이야기는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던 건축 분야를 다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유 교수는 방송 외에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어디서 살 것인가’를 통해 독자들의 인기를 끌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주)유현준 건축사무소’에서 유 교수를 만나 건축과 도시 이야기를 들었다. 사무실은 ‘3m 이상 높이의 천장

이 있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그의 지론처럼 층고가 높직한 공간이었다.

수년전부터 신문지면에 건축과 도시에 관한 글을 써오고 있는 그는 글을 ‘전공 아닌 사람과 소통하는 비전문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 그래서 그의 글은 건축과 도시공간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지만 쉽게 읽힌다. 그의 글은 건축가의 시선에 인문학을 접목했다. 건축과 도시를 다른 학문과 통섭적, 인문학적으로 통찰하는 그의 글들은 그만의 ‘글맛’을 발산한다.

그는 ‘좋은 건축물은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와 같다’고 비유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땅에 지어진 독특한 가치의 집은 없다. 건축은 땅과 기후와 만든 사람에 의해 다른 맛이 나는 포도주 같아야 하는데 소주 같은 대량생산된 건축만 만연한 한국 주거 문화가 된 것이다...’(‘어디서 살 것인가’ 중)

두 권에 실린 그의 글들은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한다.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 ‘파라오와 진시황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처럼 궁금증을 일게 하는 주제를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간다.

유 교수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라는 전제를 달고 인류 역사도 건축학적인 바탕에서 다르게 해석한다. 로마가 1000년 이상 지속됐는데 몽골제국이 150년 만에 망한 이유는 ‘권력의 상징’인 콜로세움과 같은 건축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돌과 구들장을 벗어나게 한 보일러 보급이 한국 경제를 근대화시켰다. 일본이 조선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것도 지진이 많아 온돌 대신 다다미방을 택해 앞서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년 남자들이 귀가후 소파에 누워 TV시청에 열중하는 이유도 그에겐 달리 보인다. 수렵채집시대 사냥꾼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멧돼지고 모닥불을 보며 마음의 평정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내놓는다.

좋은 건축물은 어떤 것일까? 그는 ‘어디서 살 것인가’에서 “좋은 건축은 화목하게 하는 건축이다”라고 밝힌다.

유 교수는 좋은 건축 사례로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티켓부스(TKTS)를 꼽는다. 뮤지컬 관람권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부스로, 표를 파는 몇 개의 개찰구 위 지붕을 계단으로 처리했다. 그는 이를 대지 주변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유재석 같은 건축’이라고 한다. 버려지는 말투의 박명수와 거친 열정의 노홍철을 완급 조절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자신을 뽑내는 건축물보다는 주변의 에너지를 좋게 바꾸어 사용할 줄 아는 유재석같은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 교수는 런던 ‘로이드 빌딩’과 홍콩

‘홍콩 상하이 은행’ 사옥을 ‘밥상머리 사옥’이라고 한다. 밥상에 둘러앉아 마주하며 밥을 먹는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끔 설계됐기 때문이다. 외관상으로는 고층 건물로 기업의 존재감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형태를 하고 있다. 또 지진이 많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애플 사옥은 내부에 숲을 품은 돛 모양을 하고 있는 저층 ‘수평형 사옥’ 형태를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울산 아모레퍼시픽 사옥처럼 건물 중간에 야외 중정을 도입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자신을 뽑내는 건축보다 주변과 어울려야 좋은 건축 교도소·연병장 같은 학교 스머프 마을처럼 꾸몄으면 ‘압해도 복지회관’ ‘독 디자인상’

유 교수는 서울 토박이다. 연세대와 하버드대, MIT에서 건축공부를 했고 세계적인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다. 가장 영향을 받은 건축가는 루이스 칸(에스토니아)과 일본 안도 다다오(일본)이고,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는 “어린 시절 환경과 경험이 저한테는 큰 자산”이라고 말한다. 초·중·고 시절에 2층 양옥과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 준 프레임’이 됐다고 한다. 그가 설계를 하며 건축 6요소(지붕·벽·창문·문·계단·바닥) 가운데 소통을 확산시키는 창문과 문, 계단을 중시하고, ‘사람끼리의 관계(communication)’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때의 환경에서 비롯됐다. 현재의 아파트 거실은 과거 한옥마당에 지붕을 얹은 것과 닮았다. 아파트내 벽에 창을 내 가족간 소통을 강화한 건축구조를 특허를 내기도 했다. 특히 신안군 ‘압해읍

복지회관(지상 3층)을 주민 친화적으로 설계해 ‘2016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과 ‘독일 디자인상’(German Design Award)을 수상했다.

건축구조는 도시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디서 살 것인가’를 펼친 독자들은 유 교수의 ‘학교 건축은 교도소다’라는 글을 읽으며 벼락 맞은 듯 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학교 건축은 교도소 혹은 연병장과 막사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단언한다.

“학교건축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찍어내듯이 획일화시켜요. 건축을 20년 넘게 한 다음에 학교설계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학교를 가보니 ‘학생들을 어떻게 이런 데서 키우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기 시작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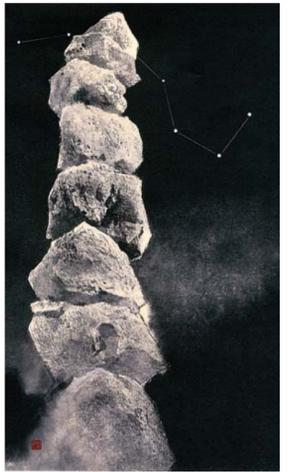
유 교수는 대안으로 ‘스머프 마을’같은 학교건축을 제시한다. 학교건물을 저층화하고,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다. 3~4개의 교실을 모아서 1~2층 주택 같은 크기의 교실동을 만들고, 그 앞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을 배치한다. 또 운동장은 주변 근린공원으로 옮겨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 교수는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할까? 그는 도시인들이 더 살기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다. 보행자 중심도로와 공원, 골목길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에 벤치를 많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복궁을 국립 박물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복궁을 박제돼 있는 공간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건축공간 안에서 도자기 등을 보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서 부족한 공간을 쓸 수 있고, 수라관에서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경복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우리 문화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7월 열린 ‘제1회 광주 건축대전’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건축학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유 교수는 광주와 전주 같은 지방 도시에 애착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산업화나 근대화로 망가지지 않은 채 보존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본다.

서울·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올마니반메홀’

장철 ‘돌 이야기’

광주 드영미술관 15일까지 직접 만든 오디오 전시도

일일이 직접 풀을 먹인 거친 광목 천 위에 그린 돌들에게선 무거움보다 가벼움이 느껴진다.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쌓여 있기도 하고, 공중에 한없이 가볍게 떠 있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무엇보다 수목담채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 자연스레 변제기는 먹의 농담의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장철 작가 개인전이 15일까지 광주 드영미술관에서 열린다. ‘돌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스타일의 작품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작품 앞에서 좀처럼 발길을 떼기 어렵다. 이번 전시는 1994년 ‘수목담채’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진 후 24년만에 다시 갖는 개인전이다. 십수년간 불가에 귀의한 그는 최근 몇개월 사이 ‘나 자신이자 삶의 스승인 돌’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물을 이번 전시하고 있다.

공중에 떠 있는 돌과 그 그림자가 묘하게 어우러진 ‘연륜’ 시리즈, 아담 속 공중에 띄워져서 쌓인 돌과 실날같은 달, 별자리가 어우러진 ‘올마니반메홀’ 시리즈, 신비로운 푸른색과 황금색의 조합이 인상적인 ‘금빛 인수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크게 울리는 클래식 음악이 발길을 붙잡는다. 소리를 따라 지하 1층 전시실로 내려가면 그가 직접 제작한 대형 오디오를 만날 수 있다. 나무를 쪼고 자르고 다듬어 스피커를 만들고 앰프도 직접 제작한 후 오랫동안 소릿결을 다듬은 오디오를 설치했다. 의자에 편히 앉아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등 클래식에 빠져들어도 좋을 것 같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